

“지적재산권 보호 보다 적극적으로”

조계종 본사주지회의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불교문화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조계종은 9월 19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불교 자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의 불교문화 콘텐츠 사용시 계약서 작성과 그에 따르는 비용 지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중과 방송, 케이블TV, 라디오 등 일체 제작물, 출판물, 모바일, 유무선 인터넷을 포함한 일체의 온라인 출판물, 사진, 그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체의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해당 사람이나 종단의 승인이 필요해, 관련 문화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불교계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 자산들을 사진, 동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형태의 문화상품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 종단 차원의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앞으로 종단 차원에서 종단 산하 사람이 소유·관리하는 불교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지적재산권 법규와 불교 재산 보존과 활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미주승가회’ 결성된다

도현·현철·원영 스님 공동대표 ... 해외특별교구 역할 기대

해외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조계종 미주승가회 준비위원회(상임 공동회장 도현, 이하 미주승가회)가 10월 5일 LA 관음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현지 포교를 이끌 ‘종단 대표기구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장기적인 목표는 ‘해외특별교구 설립’, 미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사찰들의 구심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주승가회는 9월 2일 LA 관음사에서 미주 각 지역 대표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발기인 모임을 가졌고 이튿날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법당사에서 2차 모임을 열고 임원단을 선출했다. 상임고문에 도범(보스톤 분수사), 현일(오렌지카운티 법당사) 스님을, 공동회장에 현철(LA 반야사), 원영(뉴저지 보리사), 도현(하와이 무량사) 스님을 선출했다.

또 조직을 미주 서부, 동부, 태평양 지방으로 나누는 등의 세부 회칙도 제정했다.

이같이 미주승가회가 결성됨에 따라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불씨가 트일 전망이다.

해외특별교구는 국제포교를 총괄·관리하는 ‘해외포교 총본산’ 역할을 담당하는 종단의 공식 독립기구. 조계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가 대형화된 해외포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아직 조성하지 못했다. 현재 미주 지역에만 한국 사찰은 100여 곳. 이 중 조계종 소속은 80여 곳, 스님은 60여 명으로 집계된다.

미주승가회는 세부 밑그림을 속속 그리고 있다. 단체 성격을 ‘조계종 미주 대표 기구’로 선언하고, 설립형태도 ‘조계종 현지 비영리 법인체’로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이 미

주 지역에 현지 비영리 법인체를 구성하면, 이후 미주승가회 소속 사찰을 등록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입과 동시에 사찰 재산권, 인사권, 감사권 등의 일체 권한은 법인체에 귀속된다. 이는 주지 교체 시 빈번히 발생 하는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LA 관음사 등 4곳 사찰이 설립절차 등에 의견을 공유했다.

이같은 미주승가회의 움직임에 조계종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18일 미주 승가회 상임 공동회장 도현 스님의 예방을 받고 “포교원장이 선출되는 대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또 최근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향후 해외특별교구 설립의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총무원·기획승원 스님
조계종 총무원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22일, 총무원 총무부장(前 주지 현문(玄門·위사진) 스님)을, 기획실장에 가평 백련사 주지 승원(勝源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인 총무원장 현문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총책 의지에 맞게 성의를 다해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주지 경력을 살려 총무원과 지역교구의 관계를 잘 살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실장 승원 스님도 “수행과 포교에만 매진해 온 사람이 중책을 맡아 격조와 기량이 교차한다”며 “총립직 임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기획실 업무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제14대 중앙총회 선거 누가 뛰나?

문중·계파 신중히 ‘조율중’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광)가 제14대 중앙총회의원 선거 일정을 10월 26일로 확정 발표하면서 각 교구본사 출마 예상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총회 내 총책모임인 일승회, 화엄회, 금강회, 보림회 등도 출마 후보자 선정과 직능 간선후보 선정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교구 내 문중과 중앙총회 계파간의 조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 자전 타력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각 교구별 선거 출마예상 후보자가 유과를 드러내고 있다. <표 참조>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은 선거인단 직선으로 직할 4명, 해인사 3명, 각 교구 2명씩 총 51명, 간선 직능직(유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각 2명)에 20명, 비구니 10명 등 총 81명을 선출한다.

직능선출은 교구선거 3일전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직능직

선출위원 6명에 의해 이뤄진다. 이번 14대에는 포교원장이 공석이어서 포교원장 지분까지 총무원장과 교육원장이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에도 직능직 선출은 직능 전문 직능별 대표자가 아닌, 종단 정치적 안배와 조정을 통해 계파별 지분이 계속될 전망이다.

총무원장 지관, 교육원장 청화, 수경, 지선, 명철, 풍광, 종상, 정념 스님 등 직능직 선출위원 가운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일승회 등 집권 계파내 유력 스님들을 중심으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원장 청화 스님, 수경, 정념 스님 등이 추천하는 개혁 성향의 스님들의 진출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구니 중앙총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와 석남사, 등락사, 정혜사 등 각 문중별로 대표를 선출한다.

조용수 기자

제14대 중앙총회의원 각 교구별 출마예상자

교구	출마예상 스님들
직할	지현(현 총회의원), 정범(총무원 총무국장), 자재(역조암 주지), 동광(현 총회의원, 도선사 前주지), 태연(약사사 주지), 동출(前 총무원 기획국장) 스님
용주사	성직(용주사 부주지), 심경(현 총무원장사무실장), 성호(前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환적 스님
신홍사	동선(총무원 기획실장), 도후(월원 심원사 주지), 홍진 스님
월정사	도완(현 총회의원), 정광(현 총회의원), 호림 스님(현 총회의원) 스님
법주사	노현(태백산 각화사 주지), 각원(前 총무원 재무부장), 정도(창릉사 주지), 현범(현 총회의원) 현광 스님
마곡사	장국, 원경, 태진(前 총무원 호법국장) 스님
수덕사	정목, 선광, 주경(서산 부석사 주지), 자영 스님
직지사	법동, 범보 스님
동화사	혜승, 법광, 선광(前 동화사 총무), 보경(전 총무원 재무부장), 선문(총무원 감사국장), 사요 스님
은혜사	선조, 범일, 선광(은혜사 부주지) 스님
불국사	장주, 종광, 정문(불국사 재무), 효용(총무원 재정국장) 스님 원택(총회부의장), 진각(해인사 사회국장), 해일, 심우(해인사 호법국장),
해인사	적광(해인사 전 사회국장), 대오(총국사 주지), 도각(전 사자암 주지), 여연(밀지암 주지) 스님
쌍계사	영담(부전 석왕사 주지), 이암, 성진(남해 문운사 주지) 스님
범어사	상문, 원범(부산 선암사 주지), 정만(총무원 재무부장), 원범, 종훈, 범산(부산 영주암 주지) 스님
통도사	지준, 도문, 보현, 오심(前 통도사 교무), 범해(중앙선관위원회) 스님
고운사	설승, 범조, 성목(총무원 기획국장) 스님
금산사	평상, 일화, 법진(총회사무처장) 스님
백양사	토진(수곡사 주지), 원일 스님
화양사	일문, 덕문, 진옥(여수 총국사 주지) 스님
송광사	무자(창원 길상사 주지), 보경(서울 범려사 주지), 진화(광주 증심사 주지), 광민(광주 무각사 주지) 스님
대흥사	보선, 월우 스님
관음사	광조, 진명(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오심 스님
선운사	법경(수원 종문정 주지), 보연, 성국(도솔암 주지), 혜오, 선법, 보은 스님
봉선사	보인(운문사 부주지), 승목(봉선사 총무원장), 범해, 일관(불암사 주지) 스님

고운사 주지에 호성 스님 “수행·포교 강화”

“선 수행 센터, 전통강원 복원으로 수행과 포교에 중점을 두고 고운사의 화려했던 옛 명성을 복원하는데 앞장서겠다.” 9월 19일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산중총회에서 선출된 후, 21일 주지 임명장을 받은 고운사 신임 주지 호성(昊星·사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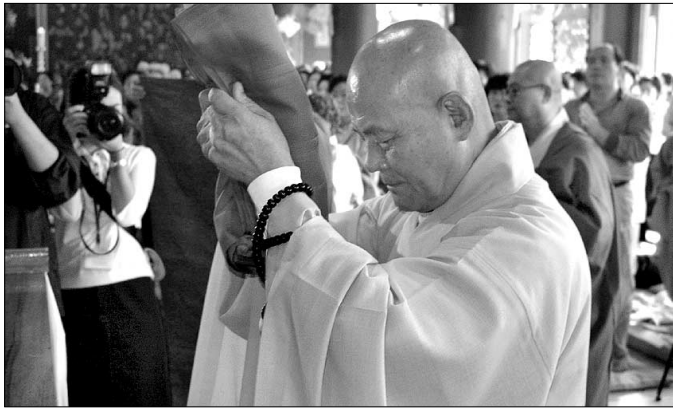
출가 후 선원에서 정진해온 호성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무려 36년간을 성만

한 수좌 출신이다. 전임 혜승 스님의 뒤를 이어 8월 14일부터 주지직무 대행을 맡으면서 실질적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를 이끌어 왔다.

호성 스님은 “올해 말 시작하는 선수행센터 불사와 신라 의상 스님의 법맥을 잇는 전통강원 복원이 임기 내 마무리 되면 고운사는 수행과 포교의 중심 사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호성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2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87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고운사 선원장을 역임했다.

조용수 기자



통일가사 점안식 ... 법계제도 정착 계기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된 통일가사 점안식이 9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가사 500여명에 대한 점안식 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번 점안식은 종단 가사 통일 및 법계제도 정착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입장료 폐지 ‘기정사실’ ... 문화재 관람료는?

최근 환경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공언하면서, 조계종 관람료 사찰 주지스님들도 9월 19일 회의를 열고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관람료위원회(위원장 범어)는 이날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시 내소사 등 9개 합동진수 사찰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지회의는 종단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범어(선운사 주지)

장범(월정사 주지) 현응(해인사 주지) 도공(법주사 주지) 원행(금산사 주지) 범일(대전사 주지) 스님 등 6명의 관람료 사찰 주지스님들과 기획실장, 재무부장, 기획실 황찬익 차장, 종단법률자문위원, 이병인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조용수 기자

호 소 문

구미시 전산읍 죽장리 479-2 죽장사는 2006년 9월 11일 총무원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죽장사를 겸수 인계하고 모든 건물의 출입을 금하며 용무가 있을 시 해당 소인자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시기 바라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불미스러운 일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2006년 8월 23일 부로 법심스님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현재 사찰입구 플래카드, 내용)

2003년 이후 직지사(주지 성웅)는 죽장사 (주지 명호)에게 총무원에서 발행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고 종단에 재산을 귀속하도록 요구하여 현주지에게 주지사자 상승의 승계를 문서로 요구 하였지만 2006년 7월로 공권력 정치 5년 선거권 박탈의 중징계 이에 항의하여 죽장사(주지 명호)는 7월 20일 탈종을 총무원에게 통보하자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사고 사찰입을 통보하고 현주지를 멸민하였습니디.

2006년 9월 11일 오후 3시 60여명의 스님 및 정제불명의 남자들이 사찰을 무단 점거하고 조계종 호법부 겸수에 응하라며 자물쇠를 절단하여 모든 집을 강제로 이삿집 센터에 유치하여, 주지, 총무, 공양주, 신도 5명은 불안한 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현재 배회하고 있습니다.

• 신도회장 김학송 • 부회장 김순희 이화선 박금숙 • 염불회 회장 권소희 • 부회장 김점숙 이해옥 • 거사림회 부회장 박응도 황병진 김윤석

명호스님은 18년 동안 죽장사를 불사하고 (88. 7. 30) 직지사에 주지임명을 받고 매년 분담금 500만원을 2005년까지 완납하였습니다.

구미 경찰서에 2006년 9월 11일 2시 40분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지만 동원된 경찰차(2대 6명)는 무단 침입과 자물쇠 강제철거를 항의하고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디.

권력앞에는 법도 없고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상장을 개탄합니다. 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개인 사유재산을 조계종이란 특정집단이 힘으로 짓밟게어 버리는 현사태를 조계종 총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루 속히 도량이 평정되어 옷한벌을 갖고 배회하고 있는 저희 주지스님, 총무스님이 기도에 정진하도록 사부대중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무단 침입하여 점거하고 있는 귀 종단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

2006년 9월 11일 신도대표



직지사가 임명한 주지 법심스님측에서 죽장사 출입을 통제, 철문을 봉쇄하고 있다. (9월14일 현재)



죽장사 입구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대한 불 교 죽 장 사